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6월 5일(주일) 제1396호

‘킹덤 파이오니어’ (Kingdom Pioneer)

2022 대학청년부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6월 30일~7월 2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7월 3일 장충체육관



사진은 지난 2017년 카운트다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사도행전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 할 청년들이 모인다. 2022 대학청년부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Kingdom Pioneer)’가 오는 6월 30일(목)부터 7월 3일(일)까지 이어진다.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는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7월 3일에는 장충체육관에서 집회가 막 오른다.

2022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에서는 6월 30일(목)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본부장) ‘성령을 받으라’, 7월 1일(금) 이인호 목사(더 사랑의교회) ‘예배를 회복하라’, 2일(토) 주부가 선교사(GO선교회) ‘열방을 품으라’, 3일(일)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재훈 담임목사 ‘킹덤 파이오니어(Kingdom Pioneer)’를 주제로 설교한다.

예배의 회복과 선교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청년들은 대학청년부 각 공동체 전자주보 또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땅의 예배와 선교

의 부흥을 소망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4,500명 선착순 모집한다. 회비는 없다.

카운트다운 집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연합중보기도팀 ‘기드온의 300 용사’ 중보기도모임이 6월 10일(금)과 17일(금)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6월 30일(수)까지 매일 밤 11시에 10분 동안 기도하는 ‘1.1.1 기도운동’도 하고 있다.

문의: 02-570-7523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마리아행전 ‘하나님 나라’

6월 22~23일 각 캠퍼스
24일 서빙고 본당 연합기도회

2022 마리아행전이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막 오른다.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어진다. 6월 22일과 23일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집회실황을 각 캠퍼스로 송출한다. 6월 24일에는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다 함께 모여 연합기도회를 한다. 6월 22일(수)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23일(목) 정근두 목사(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총장), 24일(금)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2022 마리아행전 참가신청은 6월 4일 토요일예배, 5일 일요일예배, 8일 수요일예배 이후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접수데스크에서 받는다. 현장접수만 할 수 있다. 온라인 및 전화 접수, 행사당일 현장등록은 받지 않는다. 회비는 1만 원. 선착순 마감한다.

문의: 02-3215-3667, 3201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국내 최초 기독교 독서 플랫폼 두란노 ‘두플러스’ 출시

웹사이트·앱에서 월정액 이용

두란노서원에서 국내 최초 기독교 독서 플랫폼 ‘두플러스’(이하 두플러스)를 출시했다. 두플러스는 웹사이트와 앱에서 전자책, 매거진, 오디오북, 온라인 클래스 등을 월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다.

두플러스에서는 두란노서원의 모든 자료를 제공한다. 구독 플랜을 이용하면 두란노서원에서 출판한 도서를 비롯해 <생명의 삶>, <생명의 삶 PLUS>, <목회와 신학>, <그 말씀> 등도 구독할 수 있다.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 도서 콘텐츠를 이용하는 ‘도서 플랜(월 9,900원)’, 모든 연령의 QT자료를 볼 수 있는 ‘QT 플랜(월 9,900원)’, 도서 플랜과 QT 플랜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플랜(월 15,000원)’, 목회자료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월 20,000원)’ 중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면 된다.

두란노서원이 제공하는 크리스천 콘텐츠를 이용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두플러스 홈페이지(www.du.plus) 또는 ‘두플러스’ 앱을 활용하면 된다. 첫 달은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

문의: duplus@duranno.com

기적의 163일!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 종료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 장장 6개월을 달려왔다. 지난해 성탄절부터 163일 동안 한혈로 이웃들과 생명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온누리교회를 포함한 대한민국 114개 교회와 22개 단체에서 성도 7,966명이 동참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한혈의 집, 한혈카페, 한혈 버스 등지에서 한혈하면서 생명나눔의 기쁨을 만끽했다. 5월 31일 기준 온누리교회 성도 863명(생명나눔의 기적 402명, 생명나눔의 날 461명)이 한혈했다.

전용우 성도는 “앞으로도 한혈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나누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일요일예배를 드리는 성도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용산구 서빙고로 137) 주차장 이용자에게 교회에서 주차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용 시간은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다.

국립중앙박물관 주차권은 일요일 로비에 설치되는 ‘주차권 발급 부스’에서 받으면 된다. 차량번호를 기록하고 온누리교회 주차권(당일 직인)을 수령한 다음,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미정산 출차 창구’에서 주차권을 제시하면 된다. 주차권은 일요일 오후 3시 30분까지 발급하고, 당일에만 이용할 수 있다. 평일과 토요일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성도들

은 반드시 출차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리사무실과 당일 정산 관계로 일요일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4시 30분 이후 출차하는 성도들은 주차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에도 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지하주차장(B3, B4)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목회행정실에서 ‘우선 주차증 발급 및 기계식 주차(트롤리)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고 허가받은 차량은 기계식 주차를 할 수 있다. 기계식 주차시설 크기 제한으로 외제차량, 그랜저(현대자동차) 크기 이상 차량, SUV, RV 유형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주차요금 지원

일요일 오전 8시~오후 4시 30분, 교회 로비 발급

【크리스천이 세상에 보여야 할 자화상】

보석보다 귀한 섬김!

이주민 자녀 섬기는 김금희 원장, 정태욱 성도 부부

모처럼 활짝 웃었다. 지난 5월 27일 남양주 썸머힐어린이집에서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석한 아프간특별기여자 가족들이 말이다. 자녀 걱정은 만국 공통인데 어린이집에 잘 적응한 자녀들을 보면서 아프간특별기여자자들의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 아프간특별기여자 자녀들과 이주민 자녀들을 섬기는 썸머힐어린이집 김금희 원장과 정태욱 성도 부부를 만났다. 그들은 “요즘 평생을 다음세대 교육에 헌신한 보람을 만끽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적자를 감수하며 이주민 자녀들을 섬기는 보석보다 귀한 부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이주민 자녀를 섬기는 기쁨에 폭 빠진 김금희 원장과 정태욱 성도 부부.

매달 수백만 원씩 적자가 나면 어떨까? 아마 하루하루가 끔찍할 것이다. 김금희 원장과 정태욱 성도 부부(북누리공동체, 썸머힐어린이집)는 말쑥한 집까지 팔아서 적자를 메우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부는 한 푼이라도 아끼고 더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김금희 원장, 정태욱 성도 부부가 운영하는 썸머힐어린이집에서는 이주민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이주민 자녀들을 돌보기 어렵다고 거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말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술이 바싹바싹 말라가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희 부부는 남양주시에서 썸머힐어린이집 두 곳을 운영하다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리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2017년 무렵 운영이 잘 되던 어린이집은 휴원하고, 나머지 한 곳은 2020년에 정리했습니다.”

다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김금희 원장과 정태욱 성도 부부에게 다시 썸머힐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하셨다. 김금희 원장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원아를 모집했다.

“어린이집을 3년 휴원하면 다시 개원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휴원했으니 다시 개원하라는 행정 관청의 안내를 받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매월 수백만 원씩 적자가 나던 때라 폐원하고 싶었는데 폐원도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외부 강의를 다니면서 적자를 메꾸려고 노력했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아파트까지 팔아서 썸머힐어린이집을 다시 살리기로 했습니다.”

망하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일 이주민의 자녀들을 돌보다!

심기일전한 김금희 원장과 정태욱 성도 부부는 2020년 썸머힐어린이집 원아를 모집했다. 홍보하느라 노력과 돈이 많이 들었는데 결과가 비참했다. 118명이 정원인데 모집된 원아가 18명에 불과했다. 김금희 원장은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만해야겠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망하니까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망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지 못하는 일 말입니다.”

정태욱 성도는 2020년 초에 온누리교회 비전헌금 영상을 보고 이주민을 마음에 품었다. 그리고 이주민들의 자녀들을 돌보겠다고 다

짐했다.

“이주민 자녀 한 명을 돌본다고 저희가 더 많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망하지 않았더라면 상상도 못 했을 일이긴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주민 자녀를 단 한 명이라도 보내 주신다면 주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거짓말처럼 이주민 부모와 자녀가 찾아왔습니다.”

김금희 원장과 정태욱 성도 부부를 찾아온 이주민 자녀는 K국 출신 부모를 둔 은혜(가명)였다.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돌보려는데 등록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은혜가 우리나라와 K국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이주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정태욱 성도가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은혜가 썸머힐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었다. 은혜가 썸머힐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서 김금희 원장과 정태욱 성도 부부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조건을 걸었다.

“이주민 자녀 한 명만 더 보내 주시면 정말 하나님 뜻으로 알고 헌신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성교회 선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가 있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 한 다며 도와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B국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광호(가명)는 7년 동안 엄마와 함께 집에서만 생활했다. B국에서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엄마 품에서 돌보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선교단체가 수소문 끝에 김금희 원장과 정태욱 성도 부부를 소개했다.

“은혜와 광호 같은 아이들을 미등록 이주 아들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2만여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가 14세가 되기 전까지는 국가에서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기간 부모들도 강제 출국을 시킬 수 없습니다. 부모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를뿐더러 아이들을 받아주는 교육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전국에 이주민 자녀들 돌보는 어린이집이 많아지기를...

김금희 원장과 정태욱 성도 부부는 은혜와 광호를 섬기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경험했다.

생소했던 행정절차의 달인이 되었고,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이주민 부모들을 교육하는 경험도 했다. 썸머힐어린이집에서는 매주 1회씩 채플을 하는데 이 채플을 통해 이주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주민 자녀들을 섬기는 게 익숙해질 무렵 남양주온누리M센터에서 아프간특별기여자 자녀들을 섬겨달라는 연락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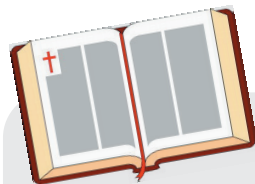
“남양주온누리M센터를 섬기는 한 성도님께서 썸머힐어린이집에서 채플을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저희에게 아프간특별기여자 자녀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것은 아프간특별기여자 부모들의 결정이라 저희는 기도만 할 뿐이 없었습니다. 아프간특별기여자 부모들이 남양주 일대 어린이집을 둘러보고 선택한 곳이 저희 썸머힐어린이집이었습니다. 이주민 자녀를 돌본 경험이 없는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모두 사양했기 때문입니다.”

김금희 원장은 아프간특별기여자 자녀들과 부모들을 섬기는데 38년 교육 경력을 모두 쏟아내고 있다. 하루하루가 보람차다는 느낌을 정말 오랜만에 경험하고 있다.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그동안 훈련 시키셨다고 확신합니다. 아마 제가 38년 교육 경력이 없었더라면, 은혜와 광호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썸머힐어린이집이 아프간특별기여자 자녀들을 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급하게 아프간을 떠나면서 받은 상처가 아직 많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김금희 원장과 정태욱 성도 부부는 아프간특별기여자 자녀들을 섬기면서 새로운 꿈이 생겼다. 전국에 썸머힐어린이집처럼 이주민 자녀들을 섬기는 어린이집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김금희 원장과 정태욱 성도 부부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온누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이 고립되지 않고, 신앙을 어린 시절부터 썸머힐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독교어린이집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기쁨이 너무 커서 재정의 어려움을 잠시 잊고 있지만, 저희 가정의 재정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주시지요.”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오늘 본문이 로마서 전체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종교개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뒤바꾼 말씀이요, 성경 해석의 열쇠가 되는 말씀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16절).

복음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자랑한다는 강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을 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로마서를 읽는 성도들을 돕고, 격려하고, 도전하고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큐리어스’라는 신으로 부르는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신앙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연약함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조차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권면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는 선언은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조롱합니다. 20~30년 전만 해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진리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진리 자체가 있느냐?”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내가 느끼고, 옳다고 여기면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고, 복음이라는 기준 자체를 무너뜨리는 시대에는 복음을 더욱 부끄럽게 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과 세속적인 이념과 철학과 사상들이 곳곳에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라고 믿는 이들이 매우 소수입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어느 시대든 복음을 받은 자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복음이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분 앞에서 과연 합당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의란 하나님의 완전한 법,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부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온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의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 의로움이 없습니다. 죄는 그 의로움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의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죄인 된 인간과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하나님의 주도권, 죄인 된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려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법학도였는데 22살에 수도사가 됩니다. 그는 엄격하고 철저한 수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수도원에서는 고행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스스로 노력으로 부합하게 하려고 고행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행을 강조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 멀어진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 수도원의 가르침, 로마교황청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사력을 다하는 고행을 하면서 수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엄격한 수도사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에 있는 ‘라테란의 성요한 대성당’이라는 곳에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 안에 있었다는 계단을 옮겨와

사람들이 그 계단을 오르며 기도하면 면죄부를 준다는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누구보다 앞서 루터가 그 계단을 오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며 기도했습니다. 교황청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고행을 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즐거움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발견됐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루터의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순간 루터는 기도를 멈추고 비텐베르크로 돌아가서 로마서 1장 16~17절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백이 그의 여러 글에 나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애를 많이 썼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 때문에 오랫동안 탐구하였고 너무 근심한 나머지 녹초가 되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해석이 되지 않아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성, 하나님의 본질로써 의를 해석하기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고행과 수행을 해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미워하며 불평하였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구원의 길을 차단하고 말았다. 그 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 되었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고통스럽게 보내다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성령님께서 빛을 비취 주셨습니다. 그에게 천국 문이 열렸고, 이제는 그 표현이 가장 위안을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희생을 통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께서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고후 5:21).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통해서만 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다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의로움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의 의를 나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의로움을 획득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의를 선물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의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순종하셔야만 했습니다. 수동적으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 짐을 담당하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자 같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도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도와 달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수모와 멸시와 조롱과 핍박,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죄인으로서 담당해야 할 죄값을 수동적으로 담당하시는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우리의 죄값과 형벌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으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낮아지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신 것이기에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13면에 계속〉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명을 지키셨을 것이다!

생명 지키고 살리는 청년들 '라이프 가드'
(Life Guard)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다.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한다. 인생에는 반반 선택지가 없다. 무엇인가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크리스천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 기준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선택해야 한다.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선택은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면에서는 선택의 순간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묻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성도와 사역팀을 소개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대학부(허브, 하늘, Pole2) 청년들이 생명 지키는 '라이프 가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베이비박스 봉사팀, 아름다운피켓 봉사팀, 안산M센터 봉사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영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 4:10~11).

성경은 한결같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매우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요 3:16).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요 15:9).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그 사랑을 몸소 증명하고 실천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크리스천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생명을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 크리스천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여기,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완수하는 청년들이 있다. 그 청년들은 대학부 '라이프 가드(Life Guard)' 활동에 흠뻑 빠져있다. 라이프 가드는 온누리교회 3개 대학부(하늘, 허브, Pole2대학부) 청년들이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봉사팀의 이름이다. 분야는 총 4개다. 베이비박스과 미혼모를 돕는 팀(아이돌봄팀, 봉사지원팀), 안산M센터 이주민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돕는 팀,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 단체 '아름다운피켓'의 캠페인을 돕는 팀, 청운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에게 서비스와 도움을 제공하는 팀이다. 팀마다 적게는 열 명부터 많게는 80여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미혼모와 아기, 태아를 지키다

김경민 자매(허브대학부)는 베이비박스 아이돌봄 봉사하면서 처음 갓난아기를 안아봤다.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목을 못 가누는 아기를 안는다는 게 처음에

는 부담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박스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작은 아기를 처음 봤습니다.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내 눈에도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한 아기인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생명일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김경민 자매는 평소 미혼모를 섬기고 싶었다. 그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아봤는데 개인이 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회에서 미혼모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봉사를 기획해준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대학부 예배 광고에서 '라이프 가드' 팀원 공고가 났다.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신청했다. 라이프 가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감동과 보람을 담백 체험하고 있다.

“아기를 못 키우겠다며 베이비박스에 놓고 간 엄마가 오늘 왔더라고요. 힘들더라도 자신이 아기를 키우겠다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기쁘고 너무 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안타까운 점도 있다. 베이비박스 아이돌봄팀은 일주일에 네 번(월, 화, 수, 금요일) 주사랑공동체를 방문해서 아기들을 돌본다. 여러 명의 봉사자가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명만 가서 봉사한다. 주사랑공동체 환경과 여건상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돌봄팀에 87명이나 지원했는데 모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주사랑공동체 공간 자체가 협소하기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인원이 오는 것을 주저하더라고요. 한 번에 한 명만 가서 아이를 돌보고 옵니다. 현장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중보기도로 달래고 있습니다.”

김경민 자매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친부모가 아기를 찾아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끝까지 부모가 아기를 찾지 않아서 외로이

자라는 아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십시오. 육의 부모는 곁에 없지만, 영의 부모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미혼모들과 아기들을 실제로 돕는 일에도 관심 가져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송지나 자매(허브대학부)는 '아름다운피켓' 생명존중 캠페인에 함께 하고 있다. 아름다운피켓은 낙태 반대 및 태아의 소중함을 알리는 프로라이프 비영리 단체다. 송지나 자매와 청년들이 지난 5월 5일 아름다운피켓이 신촌에서 진행한 어린이날 캠페인에 봉사자로 참여했다.

“젊음의 거리 신촌에서 낙태 반대와 태아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홍보하는 캠페인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민이 호응해주시고, 쿼츠나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기뻐했습니다.”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아름다운피켓의 생명존중 캠페인을 오해하는 일부 시민들의 항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시민이 호응해주셨는데, 더러 거칠게 항의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어린이날에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행사 목적이 무엇이나, 자기는 우리의 의견(태아도 생명이다)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하더라고요. 일부 시민이 아름다운피켓의 생명존중 캠페인을 오해하고 항의하는데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름다운피켓의 생명존중 캠페인을 하면서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고, 낙태에 관한 생각을 바꾸게 만든 수확도 있었다.

“사람들이 낙태 반대, 낙태 합법화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 단체와 미디어에서 낙태 합법을 외치니까 별생

각 없이 '그런가 보다'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께 왜 낙태 합법화를 반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니 그제야 이해하고 수긍하시더라고요. 우리끼리 낙태하지 말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외부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낙태 합법화의 문제를 알려야 합니다. 그 일에 청년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태아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더 많은 청년이 이 뜻깊은 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지킨다

이지호 자매(허브대학부)는 안산M센터에서 다문화 아이들을 섬기는 봉사를 한다. 이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

“학원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일까 싶었습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지만, 그 아이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이들을 보고 싶고, 함께 있어 주고 싶어서 봉사하게 됐습니다.”

안산M센터 봉사팀이 하는 일은 단순하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 M센터에 놀러 오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레크리에이션하고, 같이 밥 먹는 게 봉사의 전부다. 그런데 그 단순한 봉사가 절대 가볍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줄 때 더 커집니다. 이 사역 하나로 뭐가 달라지냐, 이 아이들이 하나님 믿게 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조그맣고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열매 맺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기도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 가드 봉사아팔로 세상의 빛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입니다. 더 많은 청년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맛있는 말씀 해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마 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선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그 진정한 정체성과 존재 의미를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표현 중 하나일 것이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보통 소금에 대해 정화(淨化)와 방부(防腐)의 기능을 떠올리며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을 생각할 때가 많다. 예수님이 정말 그런 측면으로 말씀하신 것일까? 성경 원어부터 확인해야 한다.

예수님은 빛에 대해서는 ‘세상의 빛(light of the world)’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소금에 관해서는 ‘땅의 소금(the salt of the earth)’이라고 하셨다. 성경에는 소금과 땅 사이에 선명한 의미 관계가 존재한다. 소금이 등장하는 절반 이상의 구절에서 소금은 ‘땅을 황폐하게 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짠맛의 바다는 악한 짐승의 처소이자 죽음의 장소로 알려져 있고, 소금 땅은 생명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땅을 가리킨다(욥 39:6, 렘 17:6, 겔 47:11).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땅이 윤택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멸망의 땅

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신 29:22~23). 소금 땅은 여호와와의 진노의 상징이었고,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그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을 예고하는 상징적 행위로 인식되었다(삿 9:45). 성경적 문화에서 소금과 땅이 결합될 때는 거의 부정적이다. 이런 언어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부정적인 의미(땅을 황폐하게 하는 소금)를 먼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황폐하게 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심판이다. 소금이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다른 병행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막 9:48~49).

마가복음에서 소금은 최종적 심판의 장소인 게헨나(지옥)를 묘사할 때 심판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형태인 ‘소금에 절이다’로 사용되었다. 그 바로 다음 구절이 이러하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

목하게 지내라”(막 9:50).

“소금은 좋은 것”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그 의미는 앞선 구절에서 지옥의 역할과 기능을 집행하는 심판의 기능으로써의 소금을 생각해야 한다. 소금의 짠맛은 심판을 가리킨다. “너희 가운데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권고는 ‘서로 살롬을 지키라’는 말과 같다. 성경에서 ‘살롬’은 언제나 거룩한 전쟁을 전제하고 있다. 성경에서 ‘살롬’이 처음 등장한 곳은 살렘 왕 멜기세덱(창 14:18)이라는 언급에서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왕들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를 영접하기 위해 나타났 다(창 14:17). ‘여호와 살롬’은 엄청난 전쟁을 앞둔 기드온이 쌓은 제단의 이름이었으며, 사도 바울은 사탄을 우리의 발아래 짓밟히게 하 실 하나님을 가리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롬 16:20). 우리 안에 화목(살롬)은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을 수행하며 주어지는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다. 누가복음에서는 소금의 짠맛을 전쟁 비유로 해석했다(눅 14:31~35). 1만 군사로 2만의 대적을 상대 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결사 항전 태도로

자기를 드러야 한다는 철저한 제자도가 소금의 짠맛으로 나타났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의 소금과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제자도를 따르며 영원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심판의 선포자로서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심판의 진리를 슬며시 회피하거나 억지로 완화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값싼 은총으로, 십자가가 사라진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자기중심적 욕망으로 신앙을 세속화할 수는 없다. 먼저 우리를 해부하고 심판하는 칼로서 말씀 앞에는 무릎 꿇어야 한다. 그리고 땅을 더럽히고 악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소금으로서 나아가야 한다.



이해영 목사
(남양주온누리교회)

QT 프리뷰(preview)

부활 소망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6월 6일부터 12일까지
고린도전서 15:12~16:24; 에스테르 1:1~22

성도가 부활 신앙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매일 당면하는 세상 문제에 쉽게 흔들리고 만다. 고린도교회 또한 성도들의 부활 신앙이 굳건하지 못했기에 파당과 음행과 교만과 우상 등의 문제로 분열하며 논쟁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신앙을 세우고 신앙 공동체의 조화와 성숙을 이루는 중심축이다. 고린도전서 후반부를 묵상하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할 부활 신앙을 새롭게 다져 보자.

고린도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바울은 씨앗과 열매, 동물, 천체의 유추를 들어 부활할 몸의 영광스러움을 증명한다.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다르다. 우리는 지금 흙에 속한 몸을 입고 있지만, 장차 하늘에 속한 몸을 입을 것이다. 우리가 부활하는 때는 마지막 날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사망은 패배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살아 있는 자들도 변화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는 사망의 영원한 패배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사망에 대한 승리를 안겨 주셨다.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거쳐 받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고 한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항상 힘쓰라고 한다.

또한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힘을 다하면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잊지 않았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는 ‘매주 첫날’ 곧 주일에 수입에 따라서 모아 두었다가 드리라고 권한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믿음’과 ‘사랑’이다. 여러 가지 문제로 분쟁한 고린도교회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했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했다.

‘에스테르’는 ‘룯기’와 더불어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된 두 책 중 하나다. 에스테르는 유다 민족의 절기 ‘부림절’ 기원과 더불어 에스테르와 모르드개의 활약상을 상세히 기술한다. 나라가 멸망해 멀리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신다. 이번 주간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 와스디 폐위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 보자.

에스테르는 페르시아 제국의 화려한 잔치로 시작한다. 아하수세로 왕이 등극하고 반란 세력을 모두 진압한 뒤 3년 만에 왕위가 안정되자 이를 축하하기 위해 큰 잔치를 베풀다. 페

르시아 제국의 화려한 겉모습에는 제국의 힘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잔치 마지막 날 왕은 ‘주흥이 일어나서’ 자신의 아름다운 왕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왕후에게 잔치에 나오라고 명령한다. 성경은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이유를 기록하지 않는다. 페르시아 제국의 승리와 영광을 자랑하던 잔치 자리에서 왕후의 거절은 왕의 큰 분노를 사고 만다. 현자 므무간은 폐위 조서를 내려야 왕국의 모든 여자가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라고 조언한다. 이러한 인간의 계획 너머에는 유대인 에스테르를 페르시아 제국 왕후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인간적 분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부활 소망을 품은 자로서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묵상하고 적용하자.

에스테서를 통해 역사 속에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기억하자.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에스테서를 묵상하며 우리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자.

/ 생명의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우크라이나 난민사역을 위해서!

90일 이상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난민사역에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느끼며 기도를 요청합니다. 현재 난민 보호소 사역은 스테우체니와 보지에니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단쿠(루마니아 동부 국경 지역)와 빨판까(우크라이나 남부 국경 지역), 몰도바 중부 볼차파와 몰도바 국가 직영인 몰도 엑스포 난민 센터도 지원하며 난민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난민 보호소에서 하는 사역이 정말 많습니다. 난민들을 위한 영육 간의 섬김과 생필품 지원 및 전쟁 트라우마 심리치료, 위로 및 케어, 건강 진료 및 치료, 난민법 지원책 법률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90일 이상 난민 사역을 위해 힘 없이 달려왔습니다. 힘에 부칠 때가 있었는데 NGO 더멋진세상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움 덕분에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 해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한요안 선교사(몰도바)

크리스천의 또 하나의 사명
‘혐오사회에 사랑심기’

당신도 노인이 된다!

노인혐오 벗어나기 ...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 만들어야

갈등과 다툼, 분열이 만연하다. 그래서 오늘날을 가리켜 ‘혐오의 시대’라 하는 것 같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차별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다. 혐오(嫌惡)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다른 세대와 성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모습의 이웃을 품지 못하고,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나’를 잣대로 세우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경계 대상이 된다. 그 잣대에 만족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혐오 대상이다. 혐오 시대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교회와 크리스천은 이 삭막한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야 한다. 이 지면에서는 ‘장애인 혐오’, ‘아동·청소년 혐오’, ‘노인혐오’, ‘젠더혐오’, ‘자기혐오’를 주제로 우리 사회 민낯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크리스천들이 사회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본다. 그 세 번째 주제는 ‘노인혐오’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청장년층의 노인에 대한 인식



* 청장년(19~64세) 500명, 노인층(65세 이상) 1,000명 조사
* 자료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어린이 너무 나무라지 마라. 내가 걸어왔던 길이다. 노인 너무 무시하지 마라. 내가 갈 길이다.”

배우 박중훈이 한 방송에서 한 말이다. ‘혐오사회에 사랑심기’ 기사를 기획하면서 독자들에게 이 말을 가장하고 싶었다. 아이와 노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일은 과거의 나를, 미래의 나를 미워하는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어린이였고, 누구나 노인이 된다.

경로 사회에서 혐로 사회로

‘혐로(嫌老, けんろう)’라는 말이 있다. ‘노인을 혐오한다’는 뜻을 가진 말로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인 일본에서 시작된 신조어다. ‘노인을 공경한다’는 뜻을 가진 ‘경로(敬老)’와 대비되는 이 단어가 참 씁쓸하다.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도 옛말이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례없이 빨리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만큼이나 노인을 혐오하는 사회 분위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혐로 사회’가 된 지 오래다. 온라인에서만 보더라도 툴박충(툼니를 툴박거리는 벌레), 할매미(매미처럼 시끄럽게 떠드는 할머니), 연금충(나라에서 주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벌레) 등 노인을 비하하는 말들이 유행한다. 이런 말을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같이 웃고 즐기는 유행어가 되어버렸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노인 인권 종합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청장년층 80% 이상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 청장년층(19~64세) 500명과 노인층(6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장년층 87.6%가 노인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로 보고 있다. ‘노인과 청장년 간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청장년층 비율이 80.4%나 된다. 노인을 향한 젊은 세대의 눈길이 너무 파갑다.

그것은 노인들의 잘못이 아니다

혐오(嫌惡)라는 말은 ‘싫어하고 아주 미워한다’는 뜻이다. 원어로는 ‘역겹고 구역질 날 정도로 미워하다’라는 의미다. 누군가를 이만큼

미워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노인이 정말 혐오 받을 만큼의 잘못을 했을까? 과거 공경의 대상이었던 노인이 왜 혐오의 대상이 되었을까?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이 복지 및 일자리 등 사회적 자원의 배분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청년 77.8%가 ‘노인 복지 확대도 청년층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청년 55.4%는 ‘노인 일자리 증가 때문에 청년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과연 노인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노년층 고용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노인이 하는 일과 청년이 하는 일이 다르다. 노인들은 대부분 청년들이 회피하는 업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높은 고용률이 질 좋은 일자리와 연결되는 게 아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노인이 고용되기란 쉽지 않다. 노인이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결코 아니다.

노인 복지 확대도 청년층의 부담이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노인을 혐오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고령화로 인한 청년들의 재정 및 부양 부담은 노인이 만든 문제가 결코 아니다.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이다. 이를 두고 노인 개인을 혐오해서는 안 된다. 사회 현상에 맞춰 알

맞은 제도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치권과 기업이 할 일이다. 사회에 해야 할 요구와 사회 현상으로 인해 생긴 불만을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세상은 돌고 돈다

노인이 되면 대부분 존재의 위치가 달라지는 경험을 한다. 많은 경우 가르치는 존재에서 배우는 존재로 변화된다. 이제 막 글자를 배우던 어릴 적 기자에게 한글을 가르쳐주시던 할아버지는 지금 기자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신다. 몇 번을 가르쳐드려도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잊으실 때가 많아 사용법을 공책에 하나하나 적어드렸다.

조부모님과 키오스크(무인단말기)가 설치된 매장에 갈 때면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두 기자의 몫이다. 어릴 적에는 계산할 줄 몰라 슈퍼마켓에 갈 때면 할머니 등 뒤에 숨어 수줍게 좋아하는 과자를 골랐는데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부모님과 기자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귀찮거나 싫지 않다. 이제껏 받아온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크다.

노인의 존재 위치가 달라졌다고 해서 존재 가치까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노인들은 젊은 시절 배움아가며 자식들의 배를 채우고, 본인은 글자 하나 못 읽어도 자식은 대학에 보내고, 나라를 지키고자 목숨을 내걸고,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 지금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 노인들이 현역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그 노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노인이 사회에 설 자리가 좁아진다고 해서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늙어도 가치 있고, 노인들이 존재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세상은 돌고 돈다. 노인들이 피, 땀, 눈물 흘리며 지켜온 이 땅에 청년들이 살고 있다. 또 청년들이 일구는 세상에서 노인들이 살아간다. 언젠가 청년들도 노인이 되고, 우리의 자식이 청년이 된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흐른다. 분명 우리는 누군가의 배려와 희생으로 자라왔고, 우리가 베푸는 배려와 희생을 곧 다시 돌려받는다.

진정한 해방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

‘해방’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본 인간 그리고 구원



배시은 박사
(온누리상담센터 슈퍼
바이저, 개신대학원대
학교 겸임교수)

최근 ‘나의 해방 일지’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종영했다. 이 드라마는 현대인의 지친 삶을 깊이 통찰하며 많은 사람의 공감을 끌어냈다. 드라마 등장인물들은 살면서 무엇인가에 묶이거나 갇혀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를 비추고, 현재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과연 무엇에서 해방해야 하는지, 인간에게 해방이 있기는 한지 질문을 던졌다. ‘행복 찾아가기’ 혹은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삶에서 묶인 무엇인가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줬다. 기독교인들에게는 해방이란 단어가 익숙하다. 하나님이 죄에 묶인 인간을 안타깝게 여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부터 해방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글에서 ‘해방’이라는 키워드로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기독교 상담 관점으로 재해석해보고자 한다.

삼 남매와 구씨가 추구하는 존재 가치

이 드라마는 경기도에 사는 삼 남매 가정의 주인공이다. 삼 남매 아버지(전호진 분)와 어머니(이경성 분)는 자신의 삶에 순응해서 행복이나 해방과 무관하게 산다. 최선을 다해 먹고 일하며 묵묵히 매일을 살아간다. 마치 삶의 목적이 생존인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무감하며 화가나 있다. 때로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자신과 같은 상태의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삼 남매 첫째 기정(이엘 분)은 이성(썩)을 사랑하거나 사랑받을 때 지치고 불만족스러운 삶이 회복되리라 믿으며 이성을 찾아 헤맨다. 둘째 창희(이민기 분)는 자신의 경제적, 지위적 조건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여기며 지금보다 나아지려고 노력한다. 셋째 미정(김지원 분)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에 묶여있음을 깨닫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관심과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은 진짜 사랑 ‘추앙’을 받을 때 가능하다고 믿고 누군가를 추앙하려고 한다. 이 가정에 초대된 외지인 구씨(손석구 분)는 생존을 위해 힘을 추구하고, 자신보다 힘 있는 자에게 충성하다가 지쳐서 삶을 회피하고 무력하게 살아간다. 이들은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살아간다. 생존, 사랑, 물질, 힘 그리고 행복을 갈망하는 삶은 인간을 매우 고단하게 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며, 절망하게 한다. 그중에서 셋째 미정이가 선택한 해방을 추구하는 삶이 드라마의 중심이다.



미정이는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평범하고, 자신감 없고, 허기지고, 지치고, 외롭고 버려진 느낌을 지닌 허수아비 같다고 여긴다. 갇힌 것 같은 느낌, 늘 불안하고 슬프고 무감한 느낌에서 해방되고 싶어한다. 누군가로부터 무조건적 사랑과 지지를 받아서 특별해지는 꿈을 꾸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라는 글귀를 보고 마음속에 희망을 품는다. 자신을 갇히게 하는 삶의 명에서 벗어나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인생이지’라는 인간의 본질 및 존재 이유를 추구한다.

기독교 상담학자 로렌스 크랩은 인간이 자신을 가치 있다고 믿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첫째, 중요하게(Significance) 여겨지고, 둘째,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할 때(Security)이다.

첫째, ‘중요하게 여겨지는’, 즉 존재적 의미는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삶의 목적과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목표가 있을 때 가능하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내 삶의 목적이 생존일 경우, 생존을 위해 일하고 돈을 벌고 그것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드라마 속 부모와 구씨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동물적 본능으로만 살게 된다. 늘 불만족스럽고, 허무하고, 무감하다. 크랩은 심리적 욕구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욕구까지 충족될 때 존재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인간의 심리적 욕구는 매우 다양하다. 안전하고 싶고, 소속되어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싶고,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싶고, 돌봄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로서 존재를 만족하고 싶어 한다.

첫째 기정은 자신의 인정과 관심의 욕구가 채워질 때의 상태를 “알 수 없이 가볍고, 차분

해지고, 기분 좋고, 힘든 일을 견딜 수 있다”고 표현한다. 심리적 욕구는 인간이 사는 데 꼭 필요한 본능이다. 여기에 영적 욕구, 하나님과 교제하며 연결됨을 이어갈 때 온전한 욕구가 채워진다. 삶의 목적이 있으면서 심리적, 영적 욕구를 모두 충족할 때 인간은 존재 의미가 있다.

존재 의미를 찾는 과정은 꼭 단계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심리적 욕구만 채우려 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데 머무르려 하거나 어느 부분에 결핍이 있거나 상처가 있을 때 혹은 자신의 심리적, 영적 상태에 대한 이해와 자각이 없어서 성숙이 멈출 때 인간은 자신의 상태에 갇히게 된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죄로 인해 방황을 잃은, 빛나간”이라고 하고, 심리학자들은 “고착, 미성숙, 신경증에 빠진, 오류에 빠진, 학습된, 미해결된, 자기실현이 되지 않은”이라고 진단한다.

기독교 상담자들은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관점으로 대상을 바라본다.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관점은 인간의 죄 된 상태와 구원된 상태의 모순과 긴장감을 의미하고, 그 자체를 수용할 때 성장이 일어난다고 여긴다.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듯(딤후 4:7),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고자 하지만, 자신의 심리적 문제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말씀을 따르기 어렵게 느낄 때가 있다. 매 순간 자신과 씨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과정적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향하려고 하기에 지향적이다.

진정한 추앙이자 해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둘째,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Security)은

미정과 구씨가 존재로서 서로를 수용하고, 수용할 때 변화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 미정과 구씨는 자신을 그리고 상대를 추앙하기로 한다. 드라마 속 추앙의 의미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응원하는 행위이다. 심리학자 코헛은 타인의 인정과 공감은 인간의 자기(Self)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했다. 누군가를 조건 없이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행위는 보통 태어나서 몇 년 동안 양육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예외인 경우도 있다. 아이는 태어나 몇 년 동안 양육자로부터 “너는 정말 대단해”, “너를 관심 있게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있어”라는 말과 몸짓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양육자는 대단해. 그리고 이 대단한 양육자가 괜찮다고 하는 나는 정말 괜찮구나!’라는 전능감을 경험한다. 마음속에 자기 구조가 생겨난다. 현실을 통해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며 전능감을 수정해 나간 아이는 마음속에 건강한 자신과 이상과 포부를 갖게 되고, 자신이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부재할 때 혹은 현실에서 갑작스러운 좌절을 경험할 때 ‘나는 괜찮다’라는 느낌이 없어서 나를 인정해주고 대단하다고 말해주는 대상을 계속 찾게 된다. 상대가 괜찮은 것, 사회에서 괜찮다고 하는 무엇을 추구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지만 공허하다. 드라마 속 인물들은 공허함을 채우려고 계속 무엇인가를 먹거나 술을 마신다. 혹은 사랑을 주는 대상을 찾아 헤매거나 물질을 추구한다. 그러다 삶이 죽음으로 끝나기도 한다.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요 4:22)고 말씀하셨다.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때 채워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이 우리를 채워지게 한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기 구조가 만들어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너)는 때로는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참 괜찮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너)는 사랑스럽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해방(구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 있다.

자신의 존재 의미는 마음속 욕구에 솔직하게 반응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욕구를 채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적을 가지고 삶의 작은 목표를 이루며 살아갈 때 갖게 된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예배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고, 나와 너를 사랑스럽게 볼 수 있게 되며, 서로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

라떼는 말이야

영적 태도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청년들 순예배에 함께하는 ‘순라운딩’은 청년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한다. 청년세대의 신앙관과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기도제목을 통해 청년들의 삶과 고민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귀한 자녀로 불러주신 이들이 잘 세워지도록 도와야 한다는 사명을 다시 한번 다져본다.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청년들처럼 불안과 염려, 상처로 인해 기쁨과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적지 않다. 넘쳐나는 미디어를 통해 유해한 영상들에 이목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현실, 세상을 지배하는 물질주의와 편가르기, 여러 격차는 청년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나아가 주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 넘치는 삶의 비밀까지 가려 버린다. 흔히들 영적 전쟁을 일부 귀신들린 자들, 사단의 싸움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지 아니면 사단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지 선택하는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삶의 매 순간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 영역이다.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다. 일상의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하다. 세상 유혹과 절망감을 이기고, 소망을 되찾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매일의 영적 공급을 통해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는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통해 우상과 노예근성에 물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면의 독소를 없애고서야 언약의 땅을 향한 광야의 길을 시작하게 하셨듯, 나의 시간을 드리는 영적 규칙을 세우고 지키며 세상 찌꺼기들을 그때그때 해독해야 다시 일어나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오래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나왔다. 원제목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이다. 청년의 때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잘 안다. 하지만 바쁠수록 하나님 은혜 안에 더욱 머물러야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청년 여러분이 바로 미래이고, 희망이다. 미래를 만드는 것은 나의 믿음이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큰일을 기대하며 임재 안에 머물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태도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더이상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을 넘어 하나님

님이 주시는 기쁨과 권능이 넘치는 역동적인 삶이 될 것이다.

청년들과 만나고 그들의 고민을 들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문제에 직면한 크리스천의 대응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How to do’보다는 ‘How to be’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문제에 대한 세속적 분석과 인맥 및 방법 찾기보다 나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몇 년 전 재정적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다. 그때의 불안한 마음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우쳐줬다. 상황에만 몰두하려는 마음을 애써 추스리며 눈물로 회개기도를 했을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늘 들던 말씀을 주셨다. 태어나게 하신 목적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나의 존재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다시 선포할 수 있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으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체험했다. 요셉의 형통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총리가 됐을 때가 아니라 절망적

인 노예의 삶이 시작될 때 주어졌다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처럼, 내게도 고난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주신 평안과 형통함의 시간이었다. 형통이란 문제가 해결되어 더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문제가 문제 되지 않는 상태다. 파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친 파도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청년들도 형통의 원리를 발견하고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뿐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오히려 언약을 주시며 깊은 사랑과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 지난 2년 동안 중단되었던 해외 아웃리치에 많은 청년이 지원했다고 한다. 모집 공고를 낸 당일 대부분 인원을 채웠다고 한다. 아웃리치를 통해 그 땅과 민족에 손을 내밀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요함을 담아 안고 오는 청년들 되기를 기도한다.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한다!



오범규 장로
(여호수아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모상담

자녀와 더 깊은 신뢰 쌓는 ‘사과’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은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한 어려운 작업 중 하나다. 그럼에도 자녀와 관계에서 먼저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유아기 때는 비교적 일방적으로 부모의 권위로 자녀를 훈계하고 행동 수정하는 모습이라면, 아이가 성장하면 할수록 그 모습이 변화하게 된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에게 덧입혀졌던 ‘완전성’이라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부모도 불완전할 수 있다는 현실적 인식으로 변한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가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해야 할 상황도 발생한다. 부모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생기고, 자녀와 관계에서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한 일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때가 생긴다. 자녀 양육 혹은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보다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한 인격체로 대우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한다. 이전까지는 삶의 주도권이 부모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주도성을 발휘하기를 원한다. 이 시기 자녀들은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출한다. 비교적 건강한 양육환경에서 자란 자녀라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자기표현뿐만 아

니라 마음이 상했던 일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러한 변화를 방향으로 인식한다. 이 때문에 자녀와 어색해지기도 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불안정감과 분노, 당황스러움을 경험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섭섭함, 마음 상했던 것을 토로했을 때 부모가 성숙한 태도로 자녀를 대한다면 부모-자녀의 관계에서 더욱 돈독한 신뢰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강압적인 태도로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박지른다면 자녀와 친밀도가 점점 약해지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답을 쌓고 살아가는 부모-자녀의 관계를 종종 볼 수 있다. 부모-자녀의 막힌 관계를 풀어주는 방법 하나는 ‘적절한 사과’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사과를 할 수 있는 심리적인 성숙성이 필요하다. “아빠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닌데 너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하구나”, “좀 더 너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할게”라고 사과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자녀에게 사과하는 경험이 부족한 부모라면 너무 힘든 일이다. 특히 부모인 자신이 과거 양육환경에서 부모에게 사과받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이 더욱 힘들 것이다. 그래서 사과는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의도하든 하지 않든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수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은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더욱 분명하게 느끼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 부모는 완벽한 존재, 아니 완벽한 존재여야 한다는 신념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부모와 반대되는 의견을 표현하는 게 쉽지 않고, 혹여나 부모에게 반대하는 의견, 섭섭한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표현하면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자신이 부모가 되고 자녀를 양육하면 스스로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를 볼 수 있게 된다. 당연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서 실수가 발생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다. 부모인 자신이 완벽하지 않으니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 관계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용납하고 인정하게 되면 사과를 하는 것도, 용서를 구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부모의 체면을 잃는 것이 아니다.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자녀와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 내는 양분이다.

사과할 때는 부모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자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경우 자녀에 대한 분노, 서운함, 벌을 주고자 하는 마음 등이 일어날 수 있

다. 훈계할 때도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듯이, 사과할 때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훈계가 바람직하지 못하듯이,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과도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종종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변명을 늘어놓고 싶은 욕구를 경험하게 된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했고 훈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하고 싶어진다. 변명을 늘어놓으면 사과의 의미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사과는 사과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유익하다. 부모의 권위를 잃지 않으면서 사과하고, 양육하는 지혜가 필요하다(엡 6:1-4).

나눔: 최근 자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던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자녀에게 사과한 후 마음속에서 경험했던 자신의 감정들은 무엇입니까?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자녀에게 사과를 구한 후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세상에 빛을 비추라!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폴 마샬 저 | IVP | 12,000원

모든 크리스천은 구원 이후 삶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 있는지 무척 궁금해한다. 예를 들면 일터에서 어떻게 직장생활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지, 매일 먹는 식사 준비와 요리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지친 육아와 끝없는 자녀 양육문제는 나의 믿음과 어떤 의미가 있으며, 예술인과 레저활동

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명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사회적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법조계에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활약할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해한다.

아쉽게도 한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영성을 심도 있게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개인 구원과 선교하는 데 많은 역점을 두긴 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삶의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청지기적 삶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교회와 세상의 소통이 단절되고,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살아야 하는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 외판성이 되어버리곤 했다. 교회와 세상, 영과 육이 이원화되어 어떻게 세상을 변혁시키려 하는지 도통 알 수 없게 되었다.

기독교 세계관의 권위자 폴 마샬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충실히 견지하는 동시에 기독교의 편협한 사고의 위험성이 무엇인지 분석하며 자연 세계 속에 영적인 의미와 개인의 삶 속에서 영원한 삶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기본적 대전제는 세상을 영육으로 분리하거나 심판받아 멸망할 장소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기 위해 치우친 부분을 복원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라고 논지를 제시한다. 하나님

의 새 창조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에 대해서만 불평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빛을 비추려 한다. 크리스천은 세상 속에서 소금의 기능만이 아니라 빛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저자에 따르면 세상 속 크리스천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 창조한 세계는 선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보살피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죄로 인해 타락해서 완전히 심판받고 멸망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위대한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지보다 세상의 문제 앞에 체념하거나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구원을 죽어서 갈 천국 보함을 들어 놓고 세상에서는 청지기과 소명의 책임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세계 속에 역사한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주였다. 어쩌면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치열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이해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고 반성하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의 고전이 된 이 책을 통해

미래를 조심스럽게 예견해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가오는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영역에서 다양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를테면 기후변화, 생태계의 파괴, 4차산업혁명과 기술의 적용, 노동, 과학과 의학의 윤리적 문제 등 매우 복잡하고 크리스천이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의 문제에 기독교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도피하고, 문제를 외면하기보다 더 연구하고 공동체적 영성으로 탐구해야 한다. 할리우드 영화와 사회참여에 대해 비난만 하고 보이콧만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크리스천들이 대안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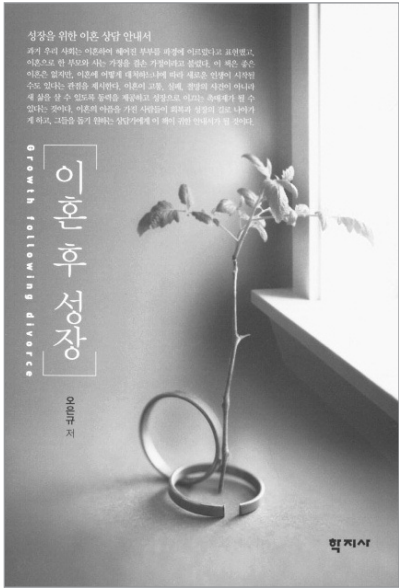
“오늘날 기독교는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피하는 것에 능하고 경기규칙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안전 플레이만 하다가 졸전을 치르는 선수들 같아 보인다”는 저자의 비판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서평

이혼한 사람들의 성장을 위한 안내서



〈이혼 후 성장〉
오은규 저 | 학지사 | 19,000원

이혼은 정말 실패이고, 절망적일까? 이혼에서부터 시작되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이혼상담 안내서가 나왔다. 오은규 목사(성동광진공

동체, 회복사역)가 쓴 〈이혼 후 성장〉이다. 이 책에서는 본래 이혼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관점에서 ‘성장’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했다. 이혼은 실패,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사건이 맞지만, 새로운 삶을 위한 동력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2021년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약 19만3천 건, 이혼 건수는 약 10만2천 건이었다.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가 약 2:1이다. 커플 2쌍이 백년가약을 맺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부부 1쌍이 갈라서고 있다. 그만큼 이혼이 보편화되었다. 그렇다면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도 변화되었을까? 이혼이 많이 보편화되었다고 해도 이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편견이 여전히 강하다. 이혼한 부부를 가리켜 ‘과경(破鏡: 깨진 거울)에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이혼으로 인해 양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가족을 ‘결손(缺損) 가정’이라고 부른다. 엄연히 배우자의 잘못이 명백한데도 ‘내가 더 참았어야 하는 거 아닐까’, ‘다들 참고 있는데 내가 유난 떠는 건 아닐까’ 등 피해자가 자책하며 괴로워한다. 이유야 어찌 됐든 당사자에게 큰 상처로 남는 게 이혼이다. 오은규

목사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다. 오은규 목사가 이 책을 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갑작스레 들려온 선배의 이혼 소식이 저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인 중에서 이혼한 사람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 선배는 이혼에 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 때문에 직장을 바뀌어야 했고,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던 저자에게 이혼을 주제로 논문을 쓰라고까지 조언했다. 자신이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가 되어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그 선배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혼과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 선배뿐만 아니라 다른 이혼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혼 경험이 주는 수치심과 외상적(트라우마) 경험, 이혼에 관한 자신의 부정적 인식 등이 인터뷰를 거부하게 만들었다. 이혼자 인터뷰를 2년이나 기다려야 했을 정도였다.

둘째, 이혼자를 위한 상담 서적이나 전문서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혼 관련 서적은 주로 이혼 전 결혼생활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혼을 막기 위한 해법들을 제시하

고 있다. 이혼하고 난 이후 자신의 삶을 돌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돌봄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책은 거의 없다. 오은규 목사는 이혼자들이 이혼 이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복하며, 성장에 이르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좋은 이혼은 없지만, 이혼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나는 이혼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장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었다. ‘당신들의 이혼 이야기는 실패나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교훈 말이다. 또한 이혼 후 성장의 과정을 돕는데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진정한 성장이란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해 의미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혼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그들을 돕기 원하는 상담자에게 귀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달려라풍당’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풍당교회학교를 찾습니다”

6월 30일까지 네이버 폼(QR코드)로 신청

CGNTV에서 달려라풍당 챌린지 후원금으로 지원할 ‘풍당교회학교’를 찾고 있다. 풍당교회학교로 선정되면 스마트TV 등 주일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는 장비를 지원받는다. ‘국내 정식교단 등록교회’, ‘성인성도 100명 이하인 교회’, ‘유아~초등학생 어린이가 1명 이상인 교

회’이 조건을 만족하거나, 추천하고 싶은 교회를 신청하면 된다. 6월 30일까지 네이버 폼(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교회는 7월 15일 개별적으로 연락한다.

다음세대를 응원하는 ‘달려라풍당’ 챌린지에는 총 4,527명이 참가했다. 달려라풍당 챌린지 참가자들

은 6월 6일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운동한 만큼 ‘풍당교회학교’를 후원한다. 달려라풍당 챌린지 후원금은 CGNTV가 전국 200개 교회에 교회학교 운영을 위한 장비와 콘텐츠를 지원하는 ‘풍당교회학교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갈렙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선교 사역을 이해하고 배우는 ‘갈렙선교학교 8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3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시청하고, 그 다음주에 조별모임을 한다.

갈렙선교학교에서는 ‘선교사의 부르심과 파송’,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 돌아보기’, ‘선교사 이해와 돌봄’ 등을 주제로 8주 동안 강의를 이어간다. 수강신청은 7월 2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10-7708-7700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모집

하나님 안에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내적치유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내적치유학교에서는 ‘내적치유와 상처’, ‘역기능 가정의 치유’, ‘관계기술과 수치심의 치유’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이기원 목사, 최용준 목사, 정희성 목사, 오은규 목사가 강의한다. 수강신청은 7월 15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6만 원.

문의: 010-6330-7634

‘여름 한동 영어 캠프’ 참가자 모집

7월 25일~8월 12일, 한동대 캠퍼스

‘여름 한동 영어 캠프’ (Summer Handong English Camp)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다. 참가비는 300만 원(수업료 및 숙식비 일체). 7월 15일까지 전화나 한동대학교 홈페이지(www.handongedu)로 신청하면 된다.

여름 한동 영어 캠프는 7월 25일(월)부터 8월 12일(금)까지 포항 한동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된다(기숙사 입소일 7월 24일). 여름 한동 영어 캠프에서는 모든 참가자가 영어만 사용한다. 롤플레이, 발표, 야외 활동 등 체험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 한동대학교 외국인 교수가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해 수준 높은 수업을 제공하고, 한동대학교 재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캠프 참가자들을 돕는다. 무엇보다 인성 및 신앙 교육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한다.

문의: 054-260-3044, 3045

6월 화요성령집회 ‘킹덤 파이오니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대학청년부 6월 화요성령집회가 ‘킹덤 파이오니어(Kingdom Pioneer)’를 주제로 막 오른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6월 화요성령집회 ‘킹

덤 파이오니어’에서는 7월 김승수 목사 ‘열방에 길을 내는 Pioneer’, 14일 최성민 목사 ‘열방으로 나아가는 Pioneer’, 21일 김승수 목사 ‘열방을 구원하는 Pioneer’, 28일 김윤식 목사 ‘Kingdom Pioneer’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양재 새가족명단

일시: 6월 12일 15:30 장소: 양재 드림홀
대상: 20220102~20220507 등록 성도

강남B 김선희 정재은	송경진 정재훈 전경호	과천의왕 고유정	오송준 유지후 조중호 최인규	분당B 고상혁 김용일 김재광 박영자 최경심 홍윤재	신명현 서초B 박서빈 송태연 유지현 이윤신	이현정 서초D 하주영	신영민 양재A 김광엽 김진원 박현신 전연옥
강남C 오세광 이숙희 장혜란	강남E 김영신 김지원	도곡 김창연 김학훈 박순영 박원준 박의진 서남서	분당A 안유림 장주원 최훈기	서초A 김희정	서초C 이재윤	송파B	푸른누리 이주혁
강남D	경기A 이상한						

기독교 OTT 풍당 <바이블킹> 30회로 증편

6월 7일부터 매주 화, 목 각 1회씩 방영

기독교 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태초부터 아멘까지 <바이블킹>’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이에 따라 CGNTV는 당초 12회로 기획했던 <바이블킹>을 30회로 증편했다. 6월 7일부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각 1회씩 방영한다. 현재 <바이블킹>은 온라인 예선을 마치고 연령별 본선에 들어갔다.

매주 풍당 카카오톡 채널에서 출

제되는 초성퀴즈를 푸는 ‘초성 바이블킹’, <바이블킹>에 나온 구절 중 하나를 암송한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나도 바이블킹’, 세 명 이상 공동체가 함께 <바이블킹>을 시청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응모하는 ‘함께 바이블킹’ 이벤트를 한다. 자세한 내용은 CGNTV 홈페이지 또는 풍당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말씀 해설과 중보기도 제목 모집

<온누리신문> ‘말씀과 기도’ 지면 신설

<온누리신문>에서 성도와 함께 만드는 ‘말씀과 기도’ 지면을 신설했다. 말씀과 기도 지면에서는 온누리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말씀을 쉽게 해설해주고, 한 주 큐티 본문을 미리 공부하며, 긴급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장(場)을 제공한다.

평소 궁금했던 말씀 해설과 긴급한 중보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은 이메일(hha0@onnuri.org)로 신청하면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긴급한 중보기도 요청은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

문의: hha0@onnuri.org

하랑 다문화가족 초청행사

6월 11~12일 양주 휴리조트

사회선교부 하랑다문화팀에서 ‘하랑 다문화가족 초청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6월 11일(토)과 12일(일) 양주 휴리조트(경기 양주시 만송로 366번길 215-29)에서 열린다.

다문화 및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가정을 초청해서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말씀과 찬양, 기도로 정체성 회복을

도우며, 가정과 공동체를 연결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 기획되었다.

하랑센터 13가정, 하랑한국어교실 5가정, 어울림합창단 7가정이 참석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 강촌공동체, 요셉청년부, 하랑다문화팀 담당 목회자 및 사역자들이 봉사자로 함께한다.

온누리세라핌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초등 1학년~중학교 3학년, 자유곡 1곡

온누리세라핌합창단(이하 세라핌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다. 최영은 성가사(010-9351-0052)에게 연락해서 오디션(자유곡 1곡, 악보 지참)을 보면 된다.

세라핌합창단은 2002년 창단했다.

정기연주회, 교회 특순, 초청 연주뿐만 아니라 해외 CGNTV 지사 방문, 선교지 찬양 선교 활동 등을 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성가대실, Acts29홀)에서 연습한다.

문의: 성가사 010-9351-0052

학부모 대표 010-9927-4224

사도행전 집중반 참가자 모집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온라인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세미나 ‘사도행전 집중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도행전 집중반은 <사도행전>의 위대한 구원사와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과정이다. 7월 7일(목)부터 8월 25일(목)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김선욱 교수(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

교 신약학)가 강의한다.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성도, 목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17만 원이다.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강의는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078-3456

■ 유아세례 간증



/ 부: 박윤성, 모: 김주희, 자: 박우덕

우리는 하나님 덕으로 산다!

우리 부부는 각자 사업과 NGO 일로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만났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난 지 7주 만에 결혼했다. 결혼 후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되었고, 모잠비크에서 첫째 아이를 갖게 되었다. 한국에서 첫 아이를 낳고 카메룬으로 거처를 옮긴 우리 부부는 둘째를 임신했다. 지난 세월 아내와 같은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신 시편 23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아이에게 ‘우리는 하나님 덕으로 산다, 우리 아들도 주님 덕으로 살아가라’라는 뜻으로 ‘우덕’이라는 한글 이름을 지어 주었다.

건강하게 자라던 우덕이가 지난 4월 백일이 되던 날 코로나19에 걸려 고열에 시달렸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던 주일 아침 우덕이의 열이 내려 백일을 축하해 주려고 백일상을 차렸다. 백일잔치 전 먼저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온 가족이 모였는데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우덕이를 발견했다. 긴급하게 119에 연락하여 통화하는 중에 다행히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는데 여러 번 같은 증상이 반복되었다. 그날 밤 아이가 입원하고 여러 검사를 받는 동안 우리 부부는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만약 아이를 데려가신다 해도 순종하자는 마음을 나누었

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이의 인생이 얼마이든 간에 감사함으로 시간을 보내자고 하였다.

검사 결과 코로나19의 공격에 일시적으로 호흡기가 미숙한 반응을 보인 것 같다고 했다. 일련의 일들을 지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부부가 우덕이를 낳고 예배 중에 함께 받은 은혜를 생각나게 하셨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라는 찬양과 기도로 우리를 이 일에 준비시키셨음을 깨달았다. 간소하게 차려뒀던 백일상이 온누리교회 지체들을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의 기도를 받는 큰 잔치가 되었다. 부활절 아침, 우덕이를 데리고 교회에 온 우리 부부는 예배당에 가득 찬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함에 마음이 벅차올랐다.

1899년, 우덕이의 고조할아버지께서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집안에 복음의 불씨가 들어왔다. 16살의 나이에 외국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이 소망을 주는 복음을 내가 꼭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한다. 그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와이미션 수료 간증



/ 주성대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

선교는 우리의 사명!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가장 가슴 뛰게 하는 단어가 ‘Acts29’ 일 것이다. 선교는 온누리교회 사역에 강조점이 찍혀있는 영역이다. 아웃리치, CGNTV, 선교헌금, 사회선교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선교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고 있다. 와이미션 강의 역시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구약과 신약의 선교적 관점에 대한 강의는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은혜가 되었다. 또 세계 선교 역사를 통해서 자발적인 선교 흐름의 선한 결과로 복음이 확산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비자발적인 선교는 예상하지 못하는 변질한 신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선교를 통한 축복에는 책임이 따르고, 선교의 기회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씀이 고민과 과제를 주는 듯했다.

‘그들을 가슴 뛰게 한 이름, 조선’ 강의에서 한국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했다.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가슴도 뛰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 이름조차 생소한 조선이라는 나라를 품고 달려온 수많은 선교사님께 감사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과 서양인에 대한 거부감, 전염병으로 인한 높은 사망

률에도 희생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조선을 위해 몸 바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사랑에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 그 사랑을 이 땅의 이주민, 난민들과 미전도 종족에게 전해야 하는 우리들의 사명이 되었다.

문화와 선교에 대한 강의 역시 새로운 도전을 주었다. 강의를 접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섬기는 안디옥 열방교회의 터키 노동자들이 생각났다. 그들은 불법 체류 신분으로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신분상 의료보험을 취득하지 못해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전함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더 열심히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신원석 목사님의 마지막 강의를 통해 선교는 왜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조건 선교를 사명으로 여기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why mission’이 아니라 ‘must be mission’의 마음으로 섬겨야겠다고 다짐했다.

■ 간사큐티스쿨 수료 간증



/ 김기화 간사(양재온누리교회 방송실)

체계적인 큐티 방법을 배우다

나는 지난해까지 큐티를 잘 하지 않고 있었다. 듣고 싶은 설교를 찾아 듣는 것으로 영적인 부족함과 갈급함을 채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나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성경 말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내용은 알고 있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나에게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이 있었음을 간사 큐티스쿨을 하면서 발견했다. 솔직히 말해서 스스로 많이 놀랐고, 교만한했던 모습을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간사큐티스쿨을 하면서 새로이 배운 것이 많다.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그 순서와 방법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큐티스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 동안은 내 방법대로 읽고 묵상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찬양과 기도, 기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기록’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오늘의 큐티를 통해 묵상하고 얻게 된 것들을 내 삶에 잘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기 위해서는 기록과 메모가 필수적이다.

며칠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나이가 시작되었기에 더욱 메모하고 기록함으로써 내 생각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큐티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큰 나머지 무리하게 일상에 적용하면 하루 이틀 지나 힘들어지고 포기할 수 있게 된다. 실현 가능한 내용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큐티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기도가 큐티의 문을 열고, 큐티를 완성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간사큐티스쿨을 통해서 체계적인 큐티 방법을 배워서 큰 도움이 되었다. 올해부터 간사순예배를 하면서 큐티를 꾸준히 하게 되었다. 큐티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기쁨들이 있었다. 그 속에서 내 상처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높아졌다. 느끼고 배운 부분들을 잘 적용해서 내 삶에 큐티가 잘 뿌리내리고, 열매 맺기를 소망한다. 좋은 강의로 섬겨주신 노치형 목사님께 감사드린다. 나눔을 하면서 다른 간사님들과 서로 알아갈 수 있어서 뜻깊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한다.

■ OBC 고린도전서 수료 간증



/ 서미란 성도(동작공동체)

부활 신앙을 소망하며!

코로나19를 지나오는 동안 영적 침체 상태가 지속되어서 나름대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딘가 소속되어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날마다 출퇴근길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들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을 설득하고, 책망하고, 칭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전했다.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권면했다. 나도 뭐라도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OBC 고린도전서 강의를 수강했다.

하루에 한 번씩 고린도전서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말씀이 아님을 알았다. 고린도교회를 세우고자 노력하는 사도 바울의 노력에 머리가 절로 숙여졌다.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의 영적 은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라는 사도 바울의 질문을 받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으로 뽕뽕 뭉쳐 있었는지를 발견했다. 나만의 안일함과 평안을 위해서 산 것을 회개했다.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 사람의 지혜로 살아왔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내 삶에서 멀리 두고 살아왔음을 고백한다. 고린도전서 강의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깨달았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장사지냄,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기억하고, 부활 신앙을 소망하며 살고 싶다.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전 10:23-24)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 것이다.

장로칼럼

‘온누리 합창 축제’에 초대합니다!



이종길 장로
(장로합창단 총무,
가정사역공동체)

찬양은 한 마디로 주님과 소통이다. 나는 온누리교회 장로합창단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찬양을 잘하는 편은 아니다. 그래도 찬양을 정말 좋아한다.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하면 한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감동이 밀려온다. 그래서 나는 찬양을 듣다가 울컥하는 때가 있다.

지난달에도 주일 2부 예배에서 찬양사역팀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의 감동을 다시 받았기 때문이라.

찬양은 교제다. 찬양은 언어도 인종도 나이도 초월한다. 지난달에 베트남 다낭에서 두 시간 떨어진 산악지역에 거주하는 ‘카투족’을 만나고 왔다. 시니어선교학교를 수료한 한 집사님이 선교사님의 여름성경학교를 도와주러 아웃리치를 가져와 제안하셨다.

그 집사님과 배낭을 메고 단둘이 무작정 베트남으로 향했다.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받고 양손 무겁게 선물을 사서 카투족이 사는 마을에 들어갔다. 마침 그날이 어버이주일이었다. 아이들이 나와서 부모들을 위한 특별 찬양을 했다. 너무 정겨운 모습을 보면서 몇십 년 전 드렸던 예배가 생각났다. 회중과 찬양을 함께 하는데 언어만 다를 뿐이지 모두 알고 있는 찬양이었다. 베트남 산골 소수민족들이 오롯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내 눈가에 한없이 이슬이 맺혔다.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장로합창단에 모이는 인원이 많이 줄었다. 코로나19 전에는 장로합창단 연습을 하면 온누리교회 장로님 70~80

명 정도가 함께 찬양하고 교제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줌(Zoom)으로 모여서 연습을 했다. 합창은 화음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줌(Zoom)으로는 화음을 쌓는 게 어려웠다. 그래서인지 장로님 20~30여 명만 모여서 연습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의 뜻을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장로합창단 연습 일정을 잡고 단원들의 얼굴을 봤다. 정말 좋았다. 손잡고 인사만 나눠도 입가에 웃음이 가득 맺혔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는 안부를 나누기에도 연습 시간이 짧았다. 지난 3주간에는 40여분이 참석하셨다. 방학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예전처럼 모이기에 아직 어려움이 있었나 보다. 연습도 중요하지만, 교제의 회복이 우선인 것 같아서 장로합창단 리트릿과 소풍을 준비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온누리장로합창단이 더욱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선보일 예정이다.

매년 12월에 장로합창단이 정기공연을 한다. 올해는 온누리교회 모든 합창단을 초청해서 ‘제1회 온누리 합창 축제’를 열려고 한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흩어진 마음을 모아 찬양의 은혜, 선교의 사명, 온누리교회의 가치를 높였으면 좋겠다. 벌써 몇몇 합창단이 함께하겠다고 마음을 모았다. 현재까지 온사랑합창단, 양재남성햇불합창단, 세라핌합창단, 장로합창단이 모였다. 자리를 마련하고 예산을 대는 것은 장로합창단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한다. 온누리교회에 속한 많은 아마추어 합창단이 모여서 축제를 열자. 주님께 잔치를 올려드리며 온누리교회의 가치를 높이자. 오는 12월 3일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을 꼭 메우고 찬양을 올려드리자. 6월 30일까지 합창단 이름, 소개, 지휘자 및 단장 연락처 등을 기재해서 문자메시지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10-6270-2327

권사칼럼

주님 이끄시는 대로



조은숙 권사
(광명공동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하용조 목사님이 수시로 선포하시던 말씀이다. “내가 예언하는데 여러분은 모두 죽을 것”이라고 선포하시던 말씀

이 이제는 내 마음에서 수시로 들린다.

2005년 즈음 재정적으로 힘들고,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와의 관계에서 마음에 심한 아픔을 안고 온누리교회에 왔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다. 잘못하면 혼날 것만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다녔던 것 같다. 온누리교회에서 이런저런 성경공부를 하면서 너무 놀랐다. 이곳에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왜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라를 전혀 살지 못하고 지옥 속에 사는 것 같은 날이 많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소망을 품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네게 주노라” 등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짐을 해결해 주시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쉬고,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고 원망했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에서 만난 말씀을 나눠 주시는 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다르고, 분명 행복하고 좋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도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내 일상에서 누리며 살기를,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주위에 전염시키며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오랫동안 나의 강한 옛자아를 주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지 못해서 수시로 마음의 전쟁을 치르며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을 보았기에 포기하지 않았다. 그 간절한 소망을 아시는 주님이 조금씩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제는 내게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만 알 수 있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다. “내 옛 자아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내 감정과 계획, 생각, 상황과 형편에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네 마음에 할례를 베풀고, 내가 주인 되어서 새사람으로 살아 주겠다”는 말씀에 반응할 것인지 매일, 매 순간 선택의 숙제를 하면서 살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수록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존재라는 것을 묵상한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다가 나의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복음과 함께, 신앙과 함께 간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

올해 권사스쿨 주제가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라’는 것을 알고 더욱 반갑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참여했다. 인생의 선배이신 목사님들과 권사님들의 강의와 나눔을 들으면서 내게 알게 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세상은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는 모든 인생의 수고를 끝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안식을 누리는 단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이제 내게 주신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육신적으로는 계속 쇠약해져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시간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하기에 허락하신 것을 알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금처럼 한결같이 주님을 향한 시선 놓치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최혁중 목사
(남양주온누리교회)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토마스 머튼은 《새 명상의 씨》에서 ‘관상(contemplation; 명상,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주팔자나 점을 볼 때 쓰이는 관상(觀相)과는 동음이의어일 뿐 전혀 상관이 없다.

“관상은 지적이며 영적인 삶의 최고의 표현이다. 깨어 활동하며 살아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는 생명 그 자체이다. 이것은 영적 놀라움으로 생명의 신성성, 존재의 신성성에 대해

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경외이다. 또한 이것은 생명, 의식, 존재에 대한 고마움, 생명과 존재가 보이지 않는 초월적이며 무한히 풍요로운 원천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깨닫는 것이고, 그 원천의 실체를 인식하는 영적 통찰력이다.”

머튼은 원천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며, 관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자기를 만져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할 때의 ‘안다’는 어떤 실재를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인식이란 증명 혹은 정의가 가능한 인식을 의미한다. 우리가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주체와 객체로 객관화해서 인식할 수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관상은 이러한 주체와 객체라는 이원화를 초월하는 인식으로 나아간다. 이것에 대해 머튼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관상은 보다 깊은 믿음이며 형상이나 말, 명

확한 개념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지식이다. 말과 상징으로 암시될 수는 있지만, 그 아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순간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라지고, 확인했던 것을 부정하게 된다. 관상 중에 우리는 알지 못하므로 알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는 것’이나 ‘알지 못하는 것’을 모두 초월하여 안다.”

관상이란 각자가 막연하게 믿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으로 어떤 의미로는 ‘체함’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체함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신이다. 철학자의 추상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볼 수 있거나 우리의 정신이 이해할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초월해서 저 멀리 무한한 곳에 계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머튼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 줄 수도 없다면 하나님을 찾

기 위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 암흑으로 들어가야 한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 상상도 없고 어떤 창조된 것과도 비슷한 데가 없는 불명료함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그대로 알 수 없다.”

이러한 불명료함, 불분명함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나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무력함과 함께 느껴지게 되고, 더 큰 의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믿음이 공고한 사람에게 불명료함으로 인한 의심이 더 크게 자리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 머튼은 “믿음의 그 불명료함이 바로 완전한 믿음의 논거”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암흑과도 같은 그 불명료함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관상(contemplation)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복음과 하나님의 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8-9).

‘그 은혜를 인하여’가 원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통로, 도구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오직 통로, 도구일 뿐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덧입힘을 받은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16절).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조차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은 나의 지혜와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조차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생겨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상이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나에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미리 주셨습니다. 구세주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꾸준히 살펴보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쌓입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조차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와 그리스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답입니다. 죄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실패와 좌절과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허락했다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

스 사람에게도, 북반구 사람, 남반구 사람, 동양사람, 서양사람,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시대가 흘러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여전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된 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 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17절).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라는 말씀은 역사상 많은 해석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세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앞의 ‘믿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전파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에서 또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믿음의 성장 혹은 성숙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도 믿음으로 시작했고, 우리 구원의 완성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을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에서 실제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의 믿음으로의 성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점점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살리라’에 방점을 두면 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자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살리라’에 둘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핍박받고 때로 죽음에 넘겨질지라도 그들은 영원토록 사는 백성이라는 확신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가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세상의 소금과 빛 ‘온누리복지재단’



임은정 센터장
(청파노인복지센터)

청파노인복지센터는 용산구 청파동(청파로 83길 26)에 위치한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관이다. 용산구에서 설립한(용산구립) 노인복지관이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이다. 2009년 3월 온누리복지재단이 용산구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청파동 어르신들의 작은 사랑방으로 배움의 공간이자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다.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이름 공간으로 올해 1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여느 노인복지관처럼 청파노인복지센터도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생활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에 찾아가 정서적, 경제적 지원도 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의 역할이 무엇일까? 청파노인복지센터가 위치한 청파동

은 용산구에서도 노인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동네다. 오래된 다가구 주택들이 즐비한 곳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비율도 높은 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지난 5월, 청파노인복지센터도 대면 교육으로 전환했다. 한글반 대면 수업 첫 시간에 참여한 윤 씨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딸마저 먼저 보낸 나에겐 삶은 너무나 우울했어. 글도 잘 모르고, 우울한 일들만 가득한 것 같던 나에게 청파노인복지센터는 한글을 가르쳐주고, 친구를 만나게 해준 소중한 곳이야. 복지관에 다시 나오게 되니 너무 신나고 설레고 그래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교육, 스마트 교육이 활발해지고 활성화되었지만, 유독 한글반 어르신들은 비대면(온라인) 수업을 어려워해서 프로그램이 중단됐었다. 혹자는 요즘 같은 시기에 아직도 한글을 배우냐며 의아해할 수 있다. 그러나 주 1회 수업만으로는 이제 겨우 알까말까 한 한글을 잇을 것 같으며 횡수를 늘려달라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지역사회 소규모 노인복

지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다수를 위한 교육과 함께 소수를 위한 교육도 이어져야 하고, 시대환경에 맞는 스마트 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나 기초교육도 필요하다. 항상 낮은 곳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해보며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어르신들의 작은 바람들을 함께 채우려는 노력한 걸음 한 걸음이 작은 복지관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청파노인복지센터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안식처다”, “나는 우리 동네에 청파노인복지센터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80이 되어가는 나이에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하니 설레고 너무 좋아서 출근 시간보다 빨리 나오게 됩니다. 나보다 어른인 95세 어르신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건강하고 즐겁게 나누며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바깥세상이 힘들어 모든 걸 단절하고 테두리에 갇혀 지낼 때 우연히 청파노인복지센터를 알게 되어 스스로 많은 변화와 도움을 얻게 되었다. 남은 생, 청파노인복지센터가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같이 마음속 한 부분으로 기

억될 것 같다.”

청파노인복지센터를 청파노인복지센터답게 만드는 어르신들의 말씀에 힘입어 더 열심히 나아가고자 한다. 청파노인복지센터에는 해바라기가 많다. 어르신 봉사단도 ‘해바라기 봉사단’, 소식지 이름도 ‘해바라기’다. 해바라기 꽃이 언제나 해를 바라보듯, 청파노인복지센터 직원들도 어르신 바라기가 되어 섬김을 행하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고자 한다. 항상 필요한 때 적절히 채워주시는 청파의 또 하나의 해바라기이자 소금과 빛인 후원자님과 봉사자들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청파노인복지센터가 오는 7월부터 지역사회 노인복지관으로써의 기능 및 운영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기관명을 ‘청파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발걸음에 기도로 응원해주시기를 바란다. 다양한 달란트와 관심,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한다.

문의: 02-703-6011

서빙고

02. 79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이강현 팀장(010-5594-920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Zoom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Youtube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402호, 매월 첫주 군포하나로센터, Zoom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Zoom / 페르시아어

주일 15:00 Acts29 Hall, Zoom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Facebook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Youtube, Facebook / 네

팔어 주일 10:00 Peace 303, Zoom / 캄보디아어 주

일 11:00 Peace 302, Facebook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Zoom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Zoom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Youtube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Youtube, Zoom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Facebook, Youtube, Zoom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tree, Zoom / 다문화 과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Zoom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Zoom / 다문화 대형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

협동조합, Zoom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Youtube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

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Youtube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Zoom / 러시아어

14:00 703호, Facebook / 미얀마어 14:00 706호,

Zoom / 과워웨이브 14:00 705호, Zoom / 꿈방

11:00 706호, Zoom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Zoom / 네팔어 11:00 2

센터 202호, Zoom, Facebook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Zoom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Zoom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

세대예배실, Zoom(14:00) / 열방청년예배 13:30 4

층 OGA, Zoom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

일 19:30 301호, Zoom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messenger group, Facebook, Zoom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6월

개강)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CMN 미용스쿨 초급반 모집

내용: 가위 사용법, 기초 컷팅, 기판파마

일시: 6월 3일~28일(매주 화, 금), 양재 오전

반 오전 10~12시 양재 JDS홀, 서빙고 오후

반 오후 2시~4시 서빙고 B102호

수강료: 8만 원(간식 제공)

재료비: 20만 원(가위 세트, 파마 도구 일체,

컷트보 등) ※재료가 있는 분은 제외

신청: 문자 또는 아이스쿨

문의: 정선 팀장(010-9034-5369)

평택온누리M센터 차세대 교사 모집

예배 및 소그룹: 11:00~13:30

대상: 초등 4학년~중학생

위치: 1호선 평택역 2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평택온누리M센터 O.G.A. 봉사자 모집

대상: 초, 중, 고, 대학교 입학준비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모집: 한국어, 미술, 악기, 미술치료, 음악치

료 수업

시간: 오전 10:00~12:00, 오후 1:00~3:00 /

화~금(주 1~2회 수업)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큐티스쿨-서빙고

일시: 7월 3일~8월 13일

장소: 온라인(매 주일 강의 링크 공지)

신청: 아이스쿨(7월 2일까지)

문의: 010-3766-9881(문자)

양재

02. 57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김효성 팀장(010-4711-1183)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체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드림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리빙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모집

대상: 공동체 참여가 어려운 온누리

교회 성도

신청: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문의: 02-3215-3214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담당: 박사무엘 목사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문의: 010-9927-4224

제82회 성령수련회

일시: 6월 18일 오전 9시~오후 5시

장소: Acts29 비전빌리지

접수: 아이스쿨

문의: 황보은선 권사(010-7120-5221)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 천

0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30 / 3부 오후 2:00 / 대

학청년 오후 4:00(대청예배) /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 유치부 9:00, 1

소천

5/27(금) 노원 업수진 성도 모친상 고 김화숙

5/30(월) 강촌 윤종희 권사 모친상 고 이지연

5/30(월) 여의도 전예순 권사 모친상 고 김옥금

5/31(화) 서초B 오민 목사 빙모상 고 이인수

6/1(수) 서대문 손명호 성도 모친상 고 고경순

온누리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는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가족센터 '오뚜기가족' 회원 모집
 대상: 서초구 및 인근지역 한부모(이혼, 비혼, 사별 등) 및 미성년 부모 가족
 내용: 회원가입 후, 부모자녀관계향상 문화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진행(개설시 별도 신청)
 기간: 모집 연중 상시
 문의: 교육문화팀(070-7477-2612)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 중 경로식당 배식 및 위생 관리 봉사활동 진행
 시간: 11:20~13:30
 문의: 관현우 사회복지사(02-3474-6080)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안윤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재 정

십일조현금: 하나는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는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는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는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는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는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술 성적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광 고

온누리선교재단 사원 모집
 1. 양지Acts29비전빌리지 단체급식 업무
 근무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
 조리사자격증 우대
 2. 45인승 버스 운행 및 차량관리
 근무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자격: 대형1종 면허 소지자(경력 3년 이상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접수: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상호 총무팀장(02-3215-3101)

영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지동문 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온누리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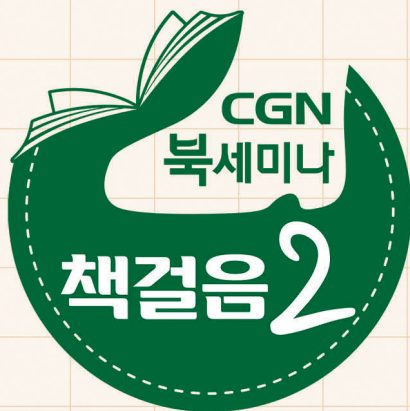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안윤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안윤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안윤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책과 함께 믿음 앞에 한걸음,
저자가 직접 들려주는
재미있는 책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6월의 책 소개

6월 1일



윤치영 목사

주가 쓰시겠다

호주 감옥에서도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은
화제의 간증을 만나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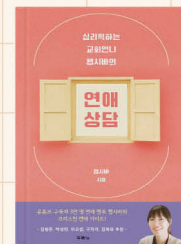
6월 8일, 15일



유튜버 헵시바

연애상담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 헵시바가
크리스천 연애 가이드를 나눕니다.



6월 22일, 29일



김민정 목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기도 100

두 아들을 키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부모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려줍니다.



방송 시간 :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40분 방송
'퐁당' 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